

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실태 및 평가방법 개발

엄기향 / 아산시보건소

저자는 전국 보건소의 학교구강보건사업 담당자와 학교 보건교사의 협조체제로 수행되고 있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을 각 사업별로 평가할 일정한 기준 항목을 개발하고, 해당 시, 군, 구 보건소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할 지역의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대한 표본 조사를 통한 평가 및 자체평가를 수행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학교구강보건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들을 보완함과 아울러, 학교구강보건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학교구강보건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자료 마련과 국민구강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, 학교구강보건사업별 평가항목으로 개발된 자체평가서를 전국 251개 시·군 보건소와 분소 56개소의 학교구강보건사업 담당자와 각 관할 학교의 보건교사에게 우편설문지를 발송하고 그 중 회신된 설문지 141매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1. 지난 1년간 보건소가 실시하였던 학교구강보건사업으로 학교구강검진사업, 학교구강보건교육사업, 학교불소용액양치사업은 90%의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었고, 학교집단이닦기 및 학교불소도포사업은 78%의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으며, 학교구강보건실운영사업은 전국적으로 약 10% 미만인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자체 평가대상에서는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서 75%의 학교가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기타 특수구강보건사업은 18%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.
2. 학교구강보건사업 중 이닦기사업, 불소용액양치사업 등을 하기 위한 수도시설이 36%정도 더 보완되어야 하고 수도꼭지수는 현재의 2배정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이닦기 도구를 보관하는 개인사물함 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3. 각 학교구강보건사업별 종합 평점은 5점 만점에 2.96 ± 0.42 점으로 나타났으며, 학교구강검진사업이 3.46 ± 0.90 점, 학교구강보건교육사업이 2.57 ± 0.81 점, 학교집단이닦기사업이 2.42 ± 0.63 점, 학교불소용액양치사업이 2.78 ± 0.70 점, 학교불소도포사업이 2.76 ± 0.78 점, 학교치면열구전색사업이 3.33 ± 0.83 점, 학교구강보건실운영사업이 3.44 ± 0.65 점, 기타 특수구강보건사업이 2.80 ± 0.65 점으로 나타났다.

학교구강보건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소 담당자를 통한 지휘감독체계와, 교육과학부에서 지방교육청을 통해 보건교사에 전달되는 지휘감독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비협조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되었다.